

한국어교육 백년대계의 초석을 놓는다

- 강현화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강현화 이사장

질문자 진대연(호원대학교 한국어학부 교수)

때 2019. 2. 12.(화) 곳 세종학당재단 이사장실

2007년 몽골의 울란바토르를 비롯한 3개국, 13개소의 세종학당이 설립된 이래 10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그 규모는 56개국 172개소로 크게 확장되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 보급의 첨병 역할을 하는 세종학당이 세계적으로 커가는 데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국가적 지원이 함께했지만 그 중심에는 세종학당재단이 있었다.

“그동안 우리가 이루어 왔던 세종학당의 양적 성장에 더해, 전 세계 세종학당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9월에 세종학당재단의 사령탑을 넘겨받은 강현화 이사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핵심 내용이다.

강현화 이사장은 1999년에 경희대학교에서 국내 최초로 한국어교육 전공 학과의 교수로 부임하였고 2008년부터는 연세대학교에서 차세대 한국어

교육의 주역들을 키워 내고 있다. 또한 한국어언어문화교육학회(KLACES)의 회장으로서 한국어교육 연구의 장을 확산시켰으며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과 같은 대규모 연구의 책임자로서 한국어교육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데 큰 몫을 담당해 왔다.

1990년대 후반 한국어세계화추진위원회의 연구원과 연구 보조원으로 시작된 강현화 이사장과 필자의 인연도 어언 20년이 되었다. 그사이 학술 대회나 회의와 같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보아 온 강현화 이사장은 언제나 균형과 화합을 중시하는 ‘평화주의자’이자 활력 넘치는 ‘에너지이저’였다. 서초동 평화빌딩의 세종학당재단 이사장실에서 인터뷰하는 동안 필자에게도 그의 활력이 전해지는 느낌이었다.

진대연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바쁘신 일정 중에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로 학술 대회나 회의에서 뵙다가 이렇게 인터뷰로 찾아 뵙게 되어 느낌이 새롭습니다. 이전부터 한국어 교육계 안팎으로 비중 있는 일들을 많이 해 오시던 중에 한국 문화 보급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세종학당재단의 이사장직까지 수행하시게 되면서 아주 분주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근황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강현화 취임 이후에 재단의 업무를 파악하고 다양한 현안들을 처리하다 보니 벌써 봄이 성큼 다가왔네요. 학계에서 하던 업무들과는 또 다른 여러 도전적인 일들이 많습니지만 요즘은 재단의 발전 방향을 구상하고 이를 한 단계 한 단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전까지 올해 문화 인턴으로 국외에 파견할 학생들과 함께 있다 왔어요.

진대연 문화 인턴 사업은 파견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현지 세종학당에도 큰 의미가 있는 사업이지요? 앞으로 재단에서 국외 파견 사업을 확대하실 거라고 들었는데요.

강현화 네, 파견 교원을 늘리고 세종학당 운영 요원도 내보낼 예정이에요.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고요. 한국어교육 전공 학생들에게 목표가 될 수 있도록 교원들의 위상을 높이려고 해요.

진대연 네,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종학당 파견 교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강현화 파견 교원 특성상 신분은 계약으로 갱신할 수밖에 없지만 채우는 지급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진대연 지난해 9월에 세종학당재단 이사장직을 맡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여러 사업에서 성과를 내셨지만 이사장으로서 생각하셨던 역점 사업들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앞으로 임기 동안, 특히 올해 추진하고자 하시는 일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개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강현화 제가 취임사에서도 언급했는데요. 그간 전 세계 세종학당이 이루어 왔던 양적 성장은 괄목할 만한 것이지만 이제는 세종학당의 질적 발전을 도모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세종학당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학습자 중심의 새로운 교육 과정을 마련하고 교사의 역량을 제고하면서 양질의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진대연 재단에서 추진할 역점 사업을 간추려 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강현화 올해 추진하려는 역점 사업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의 정보화’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통한 공익적 가치 창출’ 두 가지입니다. 먼저 교육의 정보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한국어와 한국 문화 학습 사이트인 ‘누리-세종학당’을 ‘온라인 세종학당’으로 확대·개편할 예정인데요.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여 온라인 공간에서도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보급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온라인 수준 평가와 학습 관리 시스템(LMS)을 도입하고,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서 사이트의

분류 체계도 대폭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온라인 교육을 통해 오프라인 세종학당에서 배운 학습 수준과 동일하게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를 끌어올릴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온라인 환경에 맞는 새로운 교육 과정을 개발해서 수준 높은 온라인 강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재단에서 역점을 두려는 일은 공익적 가치의 창출인데요.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할 대안을 마련해 보려고 해요. 최대한 많은 분들과 함께 논의해서 공익적 가치를 만들어 내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올해 재단은 ‘세종학당 국제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포럼은 한국어, 한국 문화, 한류 등을 주제로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공공 외교라는 관점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학계, 언론계, 정부의 관계자들을 모시고 재단의 현안과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생각입니다.

진대연 학계에서 뭘 때도 교육자로서 또 연구자로서 개척자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요. 재단 이사장으로서도 새로운 일들을 많이 구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께서서는 30년 이상을 한국어교육과 관련된 일을 해 오셨는데요. 한국어교육에 첫발을 디디실 때만 해도 국어국문학과 출신들조차 한국어교육을 생소하게 여기지 않았을까 합니다. 한국어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강현화 제가 국문과에 들어갈 때는 문학 창작의 욕심도 없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대학교 1학년 때 접했던 언어학 수업으로 비교적 일찍 언어 연구에 대한 확신을 얻었던 것 같아요. 학부 때는 언어의 구조에 대한 관심이 컸었는데 대학원에 진학한 이후에는 사용으로서의 언어에 더욱 매력을 느꼈습니다.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맥락, 또 그들 간의 소통에 흥미를 갖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인과 외국인 간의 의사소통에도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일본에서 2년, 미국

에서 3년을 지내면서 언어 학습자가 되어 보기도 하고 교사가 되어 보기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모국어가 아닌 또 다른 언어를 습득하는 기제를 규명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확성을 넘어서 적절성을 습득해 가는 외국어 학습의 과정도 궁금해졌고요. 본격적인 연구자가 된 것은 아무래도 경희대학교 한국어학과와 교수로 부임하면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진대연 세종학당재단의 이사장직을 맡으시기 전에도 연구자와 교육자로서 한국어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해 오셨고 더불어 탁월한 업적들을 만들어 오셨는데요. 재단 이사장이 되시기 이전과 그 이후의 활동 배경, 그리고 추구하시는 업적의 성격은 어떻게 달라지셨는지요? 재단 이사장 취임 후 몇 개월 동안의 경험과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강현화 국가 정책을 실행하는 공공 기관의 이사장이 되고 보니 어떤 현안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판단하고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많습니다. 대학 재직 시절에는 개인적으로 과제를 연구하고 해결하는 일이 많았는데, 이제는 제 판단의 결과가 개인의 연구나 학문에만 머물지 않고 전 세계 세종학당의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들 때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학자로서의 소신이 중요했다면 재단 이사장으로서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입장을 조율하는 능력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활동 배경도 예전에는 주로 집과 연구실을 오가는 일상이었다면 지금은 유관 기관 관계자들을 만나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은 물론 세계 여러 곳으로 국외 출장도 자주 다니게 되었어요. 그래도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진 두 직업을 경험하게 되어서 흥미롭습니다. 재단에 온 지 오래되지는 않았으나 그동안 다양한 일들을 수행하면서 보람도 많이 느꼈습니다. 재단 운영에 대해 공부해야 할 것들이 많지만 함께하는 직원들이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 이사장직을 시작할 때의 마음이 짐을 잃지 않으려고 늘 다짐하고는 합니다.

진대연 학교에 게실 때도 하시던 일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시는 상황에서 건강이나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강현화 가장 아쉬운 게 그 점인데요. 저는 지난 5년간 매일 한 시간 정도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가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을 하나고들 물으시는데 저는 약간 시계추처럼 움직이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는 일을 딱 배분해 놓고 제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시간 관리를 하는 사람인데 재단에 와서 그게 좀 어려워졌어요. 저녁에도 일정이 있을 때가 있어 여기에 온 이후로는 가끔씩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진대연 요즘은 재단 업무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시겠지만 학교 일도 가끔은 신경을 쓰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현화 물론 재단 이사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요. 그렇다고 학교 일도 전혀 신경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 9월 28일에 재단 이사장으로 부임했는데 그때는 학기 중이었고, 연구를 시작한 것도 있어서 재단에서 퇴근한 후 학교에 가서 회의를 한 적도 있었어요. 방학이 지나면서 학교 현안은 대부분 해결하였고 나머지는 큰 틀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 일을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전에 하던 연구와 연계되는 면이 있어요. 국립국어원으로부터 수탁한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 사업이 6개년 중에서 2년이 남았는데 올해 할 일은 국외 자료 수집이에요. 국외 대학이나 한글학교 자료도 수집을 하지만 대개는 세종학당 학습자 자료를 수집합니다. 한국어 말뭉치를 구축함에 있어, 세종학당 학습자들의 자료는 매우 중요해요. 해외 한국어 학습자들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이기 때문인데요. 이 사업은 재단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단 입장에서는

세종학당 학습자들이 얼마나 학습을 성취하는지, 권역별로 어떤 오류 유형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지요. 그 자료가 수집되면 우리 학습자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교재를 어떻게 개발해야 할지, 평가를 어떻게 할지 등등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입니다.

진대연 네, 한국어교육 연구와 재단 업무가 서로 상승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사례로 보입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이어 가겠습니다. 세종학당은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리는 교육 기관입니다. 현재 56개국에서 172개소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마다 세종학당의 특성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예를 들면 베트남의 꾸이넌(퀴논) 세종학당은 용산구와 협업해 개소한 곳으로 지난 1월 16일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재단이 지자체와 협력해서 세운 첫 세종학당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이사장님께서 보실 때 특징적이라 할 수 있는 세종학당 몇 군데를 좀 더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현화 재단 입장에서는 모든 세종학당이 다 특별하고 소중하지만 굳이 꼽자면 아이티의 카라콜 세종학당, 콜롬비아의 보고타 세종학당, 러시아의 모스크바 세종학당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선 카라콜 세종학당은 세계적인 의류 수출 기업인 ‘글로벌 세아’가 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학당입니다. 글로벌 세아는 세종학당 출신 학습자 중 우수한 인재들을 현지 생산 법인(S&H Global)에 채용할 예정이기도 한데요. 세종학당을 통해 2010년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아이티의 재건과 자립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타 세종학당은 한국 문화 강좌가 풍성하기로 유명한 학당입니다. 매월 사물놀이, 한식, 케이팝(K-POP) 등 학당 자체에서 한국 문화 강좌를 여는 것은 물론 ‘세종문화아카데미’를 통해

한국 문화를 현지에 전파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12월에는 분쟁 지역 주민과 경찰의 소통을 위해 예술 교육과 한국어·한국 문화 교육을 수행한 공로로, 콜롬비아 국립경찰청으로부터 교육 공로 훈장을 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모스크바 세종학당은 전 세계 세종학당 중 수강생이 가장 많은 학당입니다. 2008년 개원 후부터 현재까지 2만여 명, 2017년에만 1,246명의 수강생을 배출했습니다. 긴 역사만큼이나 학당의 한국 문화 행사도 전통과 권위를 자랑합니다. 모스크바 세종학당과 러시아 한국문화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러 친선 한국문화큰잔치’는 올해로 25회째를 맞는데 역시 8,000여 명의 러시아인들이 참여하였고 사물놀이 반은 수준급인 실력을 인정받아서 러시아 곳곳에서 초청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진대연 이어서 세종학당 개설의 방향성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각지에 세종학당을 개설할 때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수요는 물론이고 해당 국가의 정책과 개방성, 협력 가능성, 지역 균형성, 외교적 중요성 등등 살펴야 할 요소가 많이 있는데요. 지역별로 특정 요소를 고려해서 설립하시거나 기존 세종학당의 ‘색깔’을 입히고 싶은 곳이 있는지요?

강현화 국외 세종학당의 지역적 균형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재단은 현지의 수요를 근거로 매년 경쟁력이 있는 지역에 신규 세종학당을 선정해 왔는데요. 이런 선정 방식은 현지 수요에 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한국어 사각지대’나 ‘신흥·잠재 수요 지역’을 발굴하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한국어 학습자 수가 조금 적더라도 해외 세종학당의 지역적 균형을 고려하여 외교적·경제적 파급력이 큰 신흥 지역을 발굴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세종학당 운영 방식의 변화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전 세계 세종

학당의 운영 기관 상당수가 국내외 대학입니다. 유수의 대학들이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방법을 활용한 덕에 세종학당이 양적, 질적으로 단기간에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재정 기반이 튼튼하고 사업 연결망을 갖춘 지자체와 기업들의 강점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합니다.

진대연 세종학당의 유형을 다양하게 추진하시려는 것으로 보아도 될까요?

강현화 네, 현재 세종학당들의 유형을 분류해 보면 편중성이 보여요. 그래서 세종학당 학습자의 취업과 현지 진출 기업을 연계하는 기업 연계형 세종학당과 국내 지자체의 인력과 자원을 활용한 지자체 연계형 세종학당을 설립하여 이러한 편중성을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연계형 세종학당은 현지 진출 기업이 운영할 경우 예산 지원금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국고 지출을 줄일 수 있고 기업의 입장에서 현지 직원과의 소통과, 지역 사회에 봉사한다는 점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습자의 측면에서는 학습 결과가 취업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취미, 문화, 한류에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진로와 연계해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하나는 지자체 연계형 세종학당인데요. 각 지자체에서 국외에 연계 기관을 두고 봉사를 하고 싶는데 그런 통로나 지식이 없어서 재단으로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비영리단체나 국가 공공 기관 같은 곳에서도 연락이 옵니다. 얼마 전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한국어 예비 교육 등을 문의하기도 했어요. 이런 형태로 설립되는 세종학당은 예산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고 지자체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아요. 재단에서는 교사 지원에 집중할 수 있으니 더 많은 교사를 파견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유형으로는 한국 문화 강좌에 특화된 세종학당 모델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적 관심이

지속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가르치는 방법이 있겠죠? 세종학당 학습자들의 출발점은 문화이기 때문에 질 높은 문화가 보급되어야 하는데, 양질의 다양한 문화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 세종학당을 통해 단계적인 문화 학습에 머무는 게 아니라 다음 단계 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최근 세계 곳곳의 세종학당에서 세종문화아카데미에 대한 호응이 뜨겁습니다.

진대연 언어와 문화를 국외에 보급하는 것은 국격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국의 언어와 문화를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프랑스의 알리앙스 프랑세즈, 독일의 괴테 인스티투트, 중국의 공자학원/학당, 일본의 재팬 하우스 등은 세계적으로 자국어 보급하는 대표적인 기관들입니다. 이러한 자국어 보급 기관들에 비해 세종학당은 어떤 점에서 차별화될 수 있다고 보시지요?

강현화 각 기관이 가진 특징과 처한 상황들이 다르니까 타 언어 보급 기관과 세종학당을 단적으로 비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세종학당이 단기간에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동안 후발 주자로서 타 언어 보급 기관을 벤치마킹하는 데 신경을 쓴 것도 사실인데요. 현재로서는 세종학당과 타 기관의 차별성을 뚜렷하게 구분하는 것보다는 세종학당이 추구하는 목표와 교육 내용을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간접적인 설명을 드리는 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선 세종학당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 보급의 정보화’를 추구하는데요. 온라인 학습은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현재 세종학당의 수강생 수가 5만 명 선인데 누리-세종학당의 회원 가입자 수는 16만 명에 이른다는 사실도 이를 방증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거점 세종학당처럼 권역별, 언어권별 온라인 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적극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학당은 상호문화주의에 입각한 문화 교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학습자들이 원하는 질 높은 문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최대한 노력

하되 국수주의적 시각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것은 목표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상호문화적 교류가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언어와 문화를 학습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 문화를 즐기게 되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이 재단의 목표입니다.

진대연 2007년에 몽골에서 울란바토르 세종학당이 최초로 설립된 이후 12~13년 동안 학당의 역할이 커지고 인지도도 많이 향상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세계 곳곳에서 세종학당이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였지만 세종학당의 지속적인 성장을 전제로 할 때 질적인 측면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세종학당의 질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이사장님의 ‘핵심 정책’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실 수 있을까요?

강현화 재단이 할 수 있는 궁극적인 역할은 한국어교육의 내실화, 즉 질 높은 한국어교육을 제공하는 게 아닐까 하는데요. 세종학당의 질적 성장과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는 교사, 학습자, 교재, 교육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요소가 다 중요하지만 특히 교원의 전문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격과 열정을 가진 교사들이 긍지를 가지고 현장에 임할 때 좋은 결과를 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단에서는 이를 위해서 교원의 처우 개선, 재교육, 양질의 교육 자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세종학당 현지 채용 교원들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연수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진대연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현화 현지 채용 교원 중에는 한국어교육이 아닌 타 전공을 하신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의 교원 역량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연초에 올해 교육지원부의 최대 목표는 현지 교원의 질적 제고라고 공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이버 대학들과도 협약을 맺어서

이 문제를 풀어 가려고 합니다.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을 봐서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연수 등을 지원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시험을 준비하다 보니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대안으로 비교적 장기간 수업을 들으면서 교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이지요. 그 다음으로 학습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표준 교육 과정 운영을 통해서 한국어 학습의 표준화를 꾀하는 한편 현지 특성에 맞는 특별 교육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현지 한국어 수요에 대응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교육 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도 일부 있어서 학당 내 자료실 개설과 같은 시설 개선 사업을 통해서 세종학당을 고품격 교육 환경으로 조성해 나가려고도 해요.

진대연 네, 말씀만 들어도 세종학당 발전의 청사진이 보이는 듯합니다. 세종학당의 운영과 관련해 좋은 방안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강현화 직접적인 교육 외에 세종학당의 효율적 운영도 재단이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세종학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업무의 정보화와 간소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재단은 국고 보조금으로 전 세계 세종학당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국가 예산 회계에 준하는 엄격한 방식으로 세종학당 지원금을 정산하고 있어서 현지 학당 관계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은 세종학당의 지원금 결산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방침입니다. 올해 안에 새로운 정산 시스템을 시범 운영 하고 현지 세종학당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 행정 절차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재단 입장에서는 한국어 교육의 사각지대 해소나 세종학당 개소 수 확대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설립, 운영되고 있는 세종학당 한 곳 한 곳을 더 내실화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찾아서 실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진대연 세종학당 운영의 내실화가 바로 현지 한국어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와 연결된다고 보면 이 문제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당 운영의 내실화 과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어려움은 없으신지요?

강현화 네, 관련된 문제로 지정 취소까지 간 학당이 몇 군데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지만 예산 관리의 문제가 컸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개의 세종학당이 지정되는 데도 많은 행정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한번 지정이 되면 내실 있게 잘 운영되도록 재단에서도 해주려고 하는데 안타까운 점도 있지요. 학당의 운영 요원들의 문서 작성 능력이나 행정 업무 능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현지 예산 집행 방식이 국가 예산 정산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단의 예산 집행과 결산은 회계 법인과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다소 간간한 편이라 국가 예산 관리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현지 세종학당의 입장에서 보면 만만치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정산 시스템을 전산화해서 올해 말까지 완성하고 이에 따라서 연말에 한 번 하던 정산을 분기별로 할 수 있게 하고 또 아주 단순하게 정산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집행만 투명하게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지요.

진대연 이사장님께서 현지 세종학당 평가 시스템도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강현화 부실하거나 혹은 현지 사정으로 운영할 수 없는 세종학당은 과감하게 지정을 취소해야 하겠지만 취소를 할 때도 수긍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해서 만들었어요. 어떤 경우에 어떤 경고를 몇 번 받으면 취소가 되는지, 어떤 영역에서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으면 취소가 되는지 알려 줍니다. 미리미리 세종학당을 평가하면서 각 세종학당별로 평가를 제공해 줍니다. 전체 세종학당을 비교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찾을 수 있도록 그래프로 만들어 마치 토익이나 토플 시험을 보면 각 영역의 점수와 취약한 부분이 나오는 것처럼요. 강점과 약점을 알려 주고 조언과 상담을 했는데 정확하게 문제점을 알려 주고 그 다음에 개선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점에서 학당들의 반응이 매우 좋아요.

진대연 학당지원부가 가뜩이나 바쁠 텐데요. 학당 진단 평가서를 모든 세종학당에 다 보내 주신 것인가요? 혹시 최하위에 해당되는 곳에서 반발 같은 것은 없었나요?

강현화 사실 평가라기보다는 내실화를 위한 건설팅에 가깝습니다.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모든 세종학당에 평가서를 보내 드렸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평가서에 순위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서 다른 학당들과 순위 경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평가서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상담을 하게 합니다. 또 수익금이 나는 세종학당은 학당장 인건비나 여타 항목 등에서 수익금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그 폭을 조금 넓혔어요. 학당 운영의 주체에 어느 정도 허용할 부분은 허용을 하고 지침도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학당을 운영하려면 정말 많은 노력이 들어가게 마련인데 운영하는 주체에게 금지로 이어지든 경제적인 이익으로 이어지든 아니면 자기 소속 기관 교원들의 훈련으로 이어지든 도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진대연 이사장님께서 전문적인 한국어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도 세종학당의 질적 성장과 직결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데는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이외에 어떤 전문성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강현화 세종학당 교원은 현지 학습자의 특성에 맞춰 한국어를 가르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어교육을 위해서 학습자가 원하는 교육 과정이나 교수법, 교재 등을 만드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

입니다. 교원에게 현지 학습자의 요구를 세밀히 파악하는 능력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교원들은 현지화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그것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능력도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재단에서도 교원들이 현지 한국어 학습자들의 요구를 파악해서 현지에 특화된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능력을 연마하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성취도 평가, 수업 보조 자료 개발, 정보화 업무 등 교원들의 수업 능력과 행정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세종학당 교원은 현지어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때문에 앞으로 교사 선발을 할 때 권역별로 뽑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학습자들의 모국어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된다면 현지 학습자에게 맞는 교수법을 개발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재단에서도 교원들에게 현지어 연수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부여할 방침입니다.

진대연 재단에서 파견하는 교원들은 ‘한국 문화 전도사’의 역할이 가장 크지 않을까 합니다. 세종학당에서 추구하는 문화 교육의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강현화 재단이 생각하는 세종학당의 문화 교육 방향은 크게 ‘전문성’과 ‘체계화’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문화 보급 사업은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수한 강사와 문화 자료를 조달하기 어려운 현지 환경에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을 텐데요. 그래서 재단에서는 외국인에게 한국 문화를 수준 높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알린다는 목표 아래 구체적인 전략을 강구했습니다. 하나는 《세종한국문화》 교재 개발입니다. 재단에서 한국어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어떤 문화를 알릴 것인지, 또 문화를 어떻게 알릴 것인지를 연구했는데요. 그 결과 탄생한 교재가 《세종 한국문화》입니다. 이 교재 덕분에 외국인들은 검증된 한국 문화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다른 하나는 한국 문화 전문 인력 파견입니다. 2013년부터 한국 문화 전문가와 문화 인턴을 전 세계 세종학당에 보내서 한국 문화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2016년부터는 고품격 한국 문화 과정이라 할 수 있는 ‘세종문화 아카데미’를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복진흥센터, 한식재단 같은 유관 기관에서 문화 전문가들을 세종문화아카데미 강사로 파견해 해설과 체험이 결합된 고품격 강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세종학당 지역별 워크숍에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지역별 워크숍을 통해 현지 운영 요원과 교원들에게 한국 문화를 체험하게 하고 이를 학당의 학습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파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문화가 우월하다는 입장이 아니라 상호 교류의 관점에서 세종학당의 문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진대연 세종장학재단은 최근 한국어교육 관련 학회들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이중언어학회, 한국어언어문화교육학회 등 방대한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시겠다는 포석으로 보이는데요. 협약을 맺은 4대 학회와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협력하실 계획인지요?

강현화 재단이 단기간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것은 전임 이사장님을 비롯해 한국어교육 관계자, 그리고 국내외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의 헌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 한국어교육과 직접 관련된 일들은 아무래도 한국어 교육계의 도움이 가장 중요하므로 앞으로 더 많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4대 학회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진대연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같이 하실 계획인지 몇 가지 예를 들어 주시겠습니까?

강현화 우선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의 체계화를 위해서 다양한 인력풀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세종학당 교원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문화 인턴 교육 등에서 전문가들을 모시고자 하고요. 재단의 용역 사업 자문이나 평가에도 각 학회의 분야별 전문가를 평가자로 추천받으려고 합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 확산을 위한 실질적인 자문 협력 체계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재단 사업에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 회의를 개최하고 전문가들의 여러 의견을 경청해서 사업에 반영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재단은 4대 학회의 학술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해 재단에서 만든 다양한 교육 자료를 홍보하고 국가사업의 결과물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진대연 세종학당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숙달도 평가 개발도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4대 학회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것인가요?

강현화 제가 이사장으로 와서 업무를 파악해 보니, 배치 시험과 성취도 평가는 하고 있었고 숙달도 평가는 올해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평가라는 것이 일련의 회귀적인 과정이고 교육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잖아요. 외국의 모든 자국어 보급 기관은 기관에서 직접 시행하는 숙달도 평가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평가 결과가 국외 학습자들의 현지 취업에 도움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세종학당에서 어느 단계까지 수료하였다는 정보만 보여 줄 수밖에 없어요.

진대연 한국어 숙달도 평가로는 1997년에 시작된 한국어능력시험(토픽, TOPIK)이 정착이 되었고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과의 차별성은 어떻게 될까요?

강현화 재단에서 시행할 숙달도 평가는 주로 세종학당의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목적보다는 실무적 특징을 반영할 것입니다. 토픽(TOPIK)과 보완적인 관계로 위상이 설정될 것으로 기대하는데요. 우선 연구진이 관련 내용에 대해 연구할 것입니다. 4대

학회와 업무 협약을 맺었으니까 각 학회에서 평가 전문가들을 다수로 추천받아서 숙달도 평가 관련 자문을 구하고 공청회에도 참여해서 의견을 모을 계획입니다.

진대연 그래도 기존에 이미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또 다른 숙달도 평가가 만들어지면 중복되는 지점이 있어서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들도 있지 않을까요?

강현화 그러한 부분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다양한 평가가 생긴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4대 학회의 회장님들께서 한국어 학습자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셨어요. 거기에서 용기를 얻은 바가 있고 이러한 점이 잘 조정되면 또 다른 평가 유형으로서 작동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일단은 저희의 목표는 세종학당 학습자 대상의 숙달도 평가로 쓰려는 것입니다. 기존의 토픽이 주로 주당 20시간 수업을 하는 집중과정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학습자의 규모로 보면 집중 과정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에서 배우는 학습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진대연 한국어교육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학습자 집단이 다양해지고 그에 맞게 평가 시스템도 다양해져야 한다는 요구가 최근에 더욱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강현화 작년 가을에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INK) 학술 대회的主제가 평가였습니다. 그때 서울대 팀에서 연구한 학문 목적 말하기 평가에 관한 발표도 있었습니다. 또 여러 평가 관련 발표들을 보면서, 국가 차원에서 전체적인 준거가 되는 대표적인 평가 도구도 필요하지만 특수한 학습자 유형에 따른 평가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시각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

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개인 의견을 내놓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듯합니다.

진대연 그래도 이렇게 개략적으로라도 설명을 해 주신 것이 세종학당 숙달도 평가 개발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듯합니다. 독일이나 프랑스의 자국어 보급 기관에서 시행하는 평가들이 권위를 인정받고 언어 학습에 영향력이 있듯이 세종학당 숙달도 평가도 그렇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강현화 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공청회처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또 다른 목표나 등급을 설정해서 만들어진다면 표준은 표준대로, 표준 이외의 것은 ‘특화’된 것으로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진대연 이제 한국 문화 보급 기관들의 역할 분담에 관해 여쭙어 보려고 합니다. 국외에는 세종학당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원, 한국교육원 등 유관 기관들도 한국 문화의 보급과 교육의 창구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설립 목적이나 활동 범위가 다른 부분도 있지만 많은 영역에서 역할이 중첩되기도 합니다. 그에 따라 예산이나 인력의 효율적 투여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더군요. 이 문제에 관해서 이사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요?

강현화 아시다시피 세종학당재단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기관 중 가장 후발 주자입니다. 재단과 유관한 업무를 하는 곳으로는 국립국어원, 재외동포재단, 국제교류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많습니다. 그 기관들에서도 한국어교육과 관련이 있는 여러 일들을 하고 있어서 국고가 중복 투자되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진대연 그런데 정부에서는 국외 한국어 보급 창구를 세종학당으로 통합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현화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외교부 등 3개 부처가 별도로 추진해 왔던 해외 한국어교육 지원 체계의 분절화와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 창구를 세종학당으로 통합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재단도 교육 대상별로 한국어교육을 분리·지원하는 데서 발생하던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 왔고요. 세종학당이 지닌 한국어와 한국 문화 보급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해외 수요의 증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관별로 개최하던 한국어교원 국내 초청 연수를 2017년에 공동으로 실시하기도 했고요. 교육부 산하의 한국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강좌를 ‘한국교육원 세종학당’으로 지정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존의 한국문화원, 한국교육원, 한글학교 같은 유관 기관들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존중하되, 재단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한국어·한국 문화 보급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을 이어 나갈 생각입니다. 지역별 심화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전문 교원 파견과 현지 교원 역량 강화, 그리고 교재 지원 등을 중심으로 각 기관의 수요를 확인해서 더욱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갈 것입니다.

진대연 세종학당재단, 한국문화원, 한국교육원의 협력 체계가 정부 부처 간의 합의와 역할 분담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현지에서는 실제적인 역할 조정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강현화 효율성의 측면에서 보면 유사 프로그램은 당연히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재외 동포가 배울 수 있는 기관과 외국인이 배울 수 있는 기관이 같은 지역에 존재하면 선택해서 다닐 수 있을 텐데 국외 환경에서는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만약 한국어교육 기관이 하나인 경우 그곳에서 역할을 나누어 교실별로 외국인 특화, 동포 특화 교육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국어 교육 기관이 많지 않은 지역에서는 서로 협력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각 기관의 운영 목표와 업무 내용이 있기 때문에 동포 대상 교육, 외국인 대상 교육, 대학 교육, 중·고등학생 대상 교육 중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교육이 달라질 수 있어요. 각각의 대상에게 맞는 교육 과정이나 교육 내용을 제공해야 하고요. 이미 앞서 있는 기관은 그들만의 역할과 방법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은 존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관별로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통합적으로 운영하면 장점도 있지만 내실 있는 교육을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역할 구조에도 장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대상에 따라 특화된 교육이 필요한데 조금 더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진대연 기관의 역할 구분을 고려하면 그렇겠지만 각 기관에서 제공되는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통합적일 때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강현화 네, 그렇지요. 어느 지역에 가면 한글학교지만 학습자의 다수가 외국인인 경우도 있는데 그런 곳에서 계속 동포 교육이나 민족 교육을 하면 외국인들은 조금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물론 반대로 세종학당에도 교포 학습자가 존재할 수도 있고요. 문제는 학습자가 그 어떤 정체성을 요구받기를 원치 않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나인데 꼭 교포인지 외국인인지의 구분에 따라 특정 기관에 다녀야 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고요. 개념적으로는 구분을 할 수 있겠지만 학습자로 보면 나는 나거든요. 특정 대상으로 구분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학습자 친화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학습자는 한 개인이고 개인의 요구에 따라 학습자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국가 지원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지역이든 그런 부분은 협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중·고등학교 현지 교육은 교육부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보는데, 해당 기관이 아직 현지에

없고 세종학당만 있는 경우에는 잠정적으로나마 세종학당에서 한국어교육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겠지요.

진대연 국가 서비스의 대상은 중복되는데 업무 수행의 주체는 나뉘어 있는 경우가 더 있지 않겠습니까?

강현화 네, 사실 이견 교사 교육도 마찬가지거든요.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를 작년에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의 차별성은 인정되지만, 필요에 따라 어떤 행사는 공통으로 같이 하고 어떤 부분은 각기 추진하는 것도 대안이 된다고 봅니다. 각각 정책 집행을 하더라도 어떤 특정한 행사에 모여서 함께하면 세계한국어교육자라는 어떤 거대한 힘을 보여 줄 수 있고 한국어 교육자 간에 연결망을 형성하면서 긍지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책은 기본적으로 부처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내용적인 구성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학습자 교육, 현지 교육 기관 활용, 교사 교육을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재단은 올해부터 상반기, 하반기에 정책 포럼을 열 예정입니다. 한국어교육 전문가뿐만 아니라 여타 분야의 교육, 외교, 경제 전문가들을 모셔서 세종학당의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려고 하는데 그런 논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교육이 나아갈 방향도 이야기하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진대연 이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유관 기관들의 협력 방향을 듣고 싶어서 여쭙었는데 방향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까지 다 가지고 계시는군요.

강현화 저는 상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항상 생각합니다. 어떤 시기가 오면 계속 제안과 논의를 할 것입니다. 유관 기관장들과 자주 만나서 효율적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단을 포함해서, 국가 기관들의 입장으로 보면 각자 추진해야 할 변별적인 사업 꼭지가 있고 사업 꼭지별로 예산이 주어지고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면서 인원도 보충되기 때문에 각 기관들의 입장도 분명히 존중될 필요가 있지요.

진대연 조금은 가벼운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케이 팝 스타들의 인기와 한국 드라마, 영화, 음식 등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높아지면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사장님께서도 한류가 한국어 보급과 확산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시지요?

강현화 국제교류재단에서 발간한 ‘2018 지구촌 한류 현황’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94개국에서 8,900만 명이 한류 동호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10월에 ‘세종학당 우수학습자 초청연수’에 참가한 외국인들이 케이 팝 안무를 따라 하며 어울리는 모습을 보고 한 번 더 그 인기를 실감했어요. 물론 한류 팬들이 모두 다 한국어 학습자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관계는 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류 팬과 한국어 학습자 수의 간극이 굉장히 큰 것은 사실입니다. 외국 문화를 좋아하는 것이 그 문화를 좋아하는 것이지 그 언어를 좋아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국외 현지에서 학습자들과 가장 가깝게 접하면서 한류와 한국어 학습의 연관성을 체감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진대연 숫자의 간극은 크지만 세종학당 학습자들 중에는 한류 팬이 많지 않습니까?

강현화 세종학당 학습자 대부분은 한류 팬들이에요. 대부분은 케이 팝에 열광하고 드라마를 좋아하고요. 드물지만 일부 고급 학습자들은 문학 작품에 심취해 있기도 해요. 태권도에 빠진 학습자들도 많고요. 실제로 말하기 대회를 해 보면 태권도를 하다가 한국어를 배우게 되는 학생들도 꽤 있었습니다. 한류와 한국어 학습 사이에 분명히 연계 고리는 있다고 생각해요.

진대연 다른 기관들에서도 한류 팬들 덕분에 한국어 학습자가 느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강현화 그렇지요. 세종학당 말고 학습자가 가장 많이 증가하는 곳이 대학이잖아요. 미국 대학과 유럽 대학도 비슷한데요. 프랑스에는 처음에 한국학과가 한두 개였다가 지금은 열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파리 7 대학은 입학 경쟁률이 10대 1이라고 합니다. 영국도 최근에 한국학과를 네 개까지 늘렸다고 하고 또 굉장히 우수한 학습자들이 입학한다는 거예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수업과는 별개로 한류 팬들이 이끄는 동아리 활동이나 한국 문화 관련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이들의 시작은 한류였다고 볼 수 있어요. 국내 어학당에 들어와 있는 학습자들도 한류를 모른다는 학습자들은 거의 없어요. 그런 걸 보면 딱 구체적인 인과 관계는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의 국내 학습자들은 한류 팬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 대학원 수업할 때의 경험인데요. 어느 날 학생이 수업을 안 왔는데 그 이유가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에 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대학원생도 그러는 것을 보면 한류와 한국어 학습이 별개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한류는 한국 기업의 소비자로도 연결이 되거든요. 한류 팬들이 케이 뷰티(K-BEAUTY)라고 해서 한국 화장품 소비자가 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한국을 더 알게 되는 등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님이 한류, 경제, 학습이 서로 연관된 것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분석해서 굉장히 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통계로 입증한 논문을 읽었어요.

진대연 예를 들면 한류의 경제 효과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강현화 네, 주로 경제 효과를 다룬 논문인데 그 안에 세종학당이 많이 언급되면서 세종학당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이 한류에서 출발하여 한국어 학습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경제 효과로 연결이 된다고 하더군요.

진대연 이사장님께서 다독을 하신다는 얘기는 익히 들어 알고 있는데요. 한국어교육 이외의 분야에서 나온 논문들도 많이 읽으시나 봅니다.

강현화 네, 여태까지 한국어교육에 관한 논문은 한국어교육이나 언어 전공자들만 썼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틈이 나면 한류, 한국어교육, 세종학당과 관련된, 한국어교육 이외 전공 분야의 교수님들이 쓰는 논문들을 검색해서 읽고 있어요. 그리고 정책 관련 논문들도 많이 읽으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는 논문을 쓰면서 한국어교육 분야의 연구만 인용해서 쓰게 되는데, 사실 그 외의 전공 분야에 계신 분들이 세종학당에 관한 언급을 많이 하고 계셔서 공부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외로 정치가분들도 정책 저널 같은 데에 오랜 정치 경험이나 행정 경험에 입각해서 짧은 글이나 인터뷰 형식의 글을 쏟아 내시는데, 거기에 보면 통찰이 녹아 있는 좋은 글들이 많아요. 객관적 자료는 없더라도 오랫동안 그 분야에서 활동을 하면서 경험한 바를 녹여 낸 기고문 같은 것들을 보면 참고할 게 많아요. 저도 “아, 사람이라는 게 끝없이 배우는구나, 그게 끝이 없구나!” 하고 벽에 한번 또 부딪혔어요.

진대연 네, 이제 인터뷰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요즘은 다소 어려운 상황이 되기는 했지만 이삼 년 전에 비하면 남북 관계가 많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남북 교류가 더 활발해지면 세종학당의 역할이 통일을 대비하여 조금 더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고유 역할을 변함없이 수행해 나가면 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요.

강현화 작년 말에 말하기 대회를 했는데 대회 주제가 남북통일과 관련된 거였어요. 학습자들도 남북한 문제에 대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지금 배우는 언어를 가진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역사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때 학습자들이 발표하는 것을

들으면서 ‘남북통일이 되었을 때 세종학당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북한에서도 조선말 교육을 하고 있을 텐데 한국어교육의 내용이 어떻게 다를까?’, ‘어떤 것을 서로 같이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는데 답을 쉽게 찾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통일이 되어 한 나라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문화 교육이라고 해도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언어 교육, 문화 교육과 함께 역사 교육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세종학당이 꼭 언어만 가르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경제 발전과 같은 남한 중심의 내용을 역사로 가르쳤다면 이념적으로 다른 사고를 가진 남북한이 합쳐졌을 때 이를 교육 내용으로 어떻게 만들어 외국인에게 제시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진대연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는 어때요?”라고 물었을 때 답하기 어려운 것들도 생기겠지요?

강현화 그렇지요. 한국 문화를 뭐라고 얘기해야 할지, 문화적 정형을 잡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체로 어떻다고 대답해야 할 때 남한의 관점에서만 이야기하긴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문화 교육을 할 때 북한에서 발달한 한국 문화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더 한국적인 무술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런 것들이 다 연구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아직 저희가 거기까지는 대비하지 못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런 문제도 남북한 학술 포럼 등을 통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합니다.

진대연 오늘 인터뷰의 시작과 끝은 한국 문화와 관련이 되네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청해 듣고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화 저희 재단의 업무와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종학당과 재단의 발전은 혼자 힘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저희 재단 앞에는 세종학당의 내실화를 위한

새롭고 도전적인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한국어 교육 전문가들의 고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하라.”라는 말이 있지요? ‘한국어교육 백년대계’의 초석을 놓는 일에 한국어 교육계의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으면 합니다.

